

MBC, 국가경제와 기업이익 위한 콘텐츠 생산에 노력



지난 5월 14일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MBC초청 한국광고주협회 회원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광고주협회 회원 70여 명과 MBC 경영 보도 간부진 30여 명이 참석해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정치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BC가 기업인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뉴스 보도를 많이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기업의 좋은 이야기가 방송에 많이 등장할수록, 국민의 신뢰 속에서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

다"고 말하며 "기업활동이 왕성해야 경제도 성장하고 광고도 활발해진다"고 덧붙였다.

안광한 MBC 사장은 "방송 환경의 변화로 지상파 방송이 과거처럼 강자의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제도는 여전히 지상파에 불리하다"며 "글로벌 콘텐츠 전쟁에서 한류 붐을 통해 국가경제와 기업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측면에서의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사장은 "6월 상암동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MBC 조직문화를 다시 세우고 광고주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뉴스데스크'의 개편을 맞아 이진숙 보도본부장이 'MBC의 새로운 보도전략'에 대한 설명을, 김성주 캐스터가 'MBC와 함께 월드컵 즐기'란 주제로 '브라질 월드컵 중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박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는 "기업과 경제 관련 뉴스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원인보다 지엽적 관점에서 기업에 책임을 묻는 뉴스가 많다"며 "기업과 기업인 입장을 반영한 뉴스를 보다 많이 방송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부정적인 보도의 경우 형평성에 맞게 반론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장겸 MBC 보도국장은 "충분히 이해하며 향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KAA**